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 위원장에 김세연 의원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신입 위원장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7월 5일 선출됐다.

앞서 지난 1년간은 이명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왔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이며, 후반기 위원장은 이명수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각각 1년씩 맡기로 결정된 바 있다.

신임 김세연 위원장은 18대부터 20대 국회의원까지 부산 금정구에서 당선된 3선 의원이다.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그동안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김세연 위원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생애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앞으로 1년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 선출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도 일부 바뀌었다. 김현미 의원, 신동근 의원, 전혜숙 의원이 다른 상임위원으로 이동하고, 인제근 의원, 진선미 의원, 손혜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로 들어왔다. 전체 위원은 김세연 위원장을 포함해 총 22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서울 성북구)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 △정준숙 의원(비례대표)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 간사·경기 안산시단원구) △김순례 의원(비례대표) △김승희 의원(비례대표)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 △윤종필 의원(비례대표)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 간사·비례대표) △장정숙 의원(비례대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

◇무소속=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구),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무리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호스피스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공 유형을 다양화한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나, 진행 중인 유형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정형, 방문형, 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한다. 가정형은 2020년, 방문형과 소아청소년형은 2021년에 정식 도입된다.

특히 현재 33개 기관인 가정형 서비스를 2023년까지 60개로 늘리고 25개 기관인 방문형도 50개로 늘리는 등 서비스 기관을 5년 동안 약 2배 확충한다. 외래형, 지

## 통일 대비 '남북한 간호학 용어집' 발간

대한간호협회 출판 ... 통일간호포럼 집필

통일시대를 대비해 보건·의료분야 교류 및 간호체계 통합을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남북한 간호학 용어집'이 발간됐다. 사단법인 통일간호포럼 간호학용어집위원회에서 집필하고, 대한간호협회에서 출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통일 대비 첫 시작으로 남북한 간호용어의 간극 해소가 필수적"이라며 "남북한 간호학 용어집은 간호분야 언어의 통합은 물론 향후 남북한 간호인 간 소통, 남북한 주민과 간호인의 소통, 간호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서 통합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남북한 간호학문체계 정비, 통합된 간호교육과정 개발, 간호업무 및 면허체계 정비, 통일 간호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어집 저자인 통일간호포럼 간호학용어집위원회 위원들은 "남북한 모두에게 가장 용이하고 알맞은 용어를 선택하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용어집이 작은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용어집은 △남북한 간호학 용어의 차이와 이해 △남북한 간호체계 비교 △기본간호학 용어 △기초간호학 용어 △부록(일반 의학용어,



투약 관련 약어, 진료과) △한글 색인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간호학 및 기초간호학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먼저 남한 간호학 용어 중 필수용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북한 대응어를 확인했고,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았다. 남한 간호인, 북한이탈주민 간호인, 북한 간호인 모두가 간호학 용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간호학 용어는 영문-남한 한자어 용어-북한 용어 순으로 기술했다. nursing-간호-간호, airway-인공기도-통기관, nasal cannula-비강캐눌라-코카뉴레법, call bell-호출 벨-비상종, virus-바이러스-비루스.

용어집은 대한간호협회 간호학도서관(www.rnbook.or.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값 9000원.

정규숙 기자 kschung@

역사회형 등 다양한 유형의 모형을 개발한다.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도 확대한다. 현재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을 국제적 기준을 검토해 늘리기로 했다. 만성간경화 등 특정 질환별 진단명 중심에서 만성간부전과 같이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 중심으로 확대한다.

또한 서비스 부족지역은 공공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확대해 제공기관의 지역별 분포의 편차를 해소한다.

의사, 간호사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인력별 역할에 대한 서

스 표준을 재정립하고, 실습교육·보수교육 강화 등 표준교육과정을 개편해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연명의료 결정 가능 의료기관 확대 및 자기결정 강화를 위해 현재 198개에 불과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2023년까지 800개로 늘리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한다. 연명의료 상담 제공 및 결정·이행 등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반영한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주혜진 기자 hjoo@

## 내년 가정형 호스피스 도입

복지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내년부터 가정형 호스피스가 정식 도입되며, 향후 5년간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기관이 2배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 비전 아래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추진과제는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 및 질 향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대국민 정보 제공과 생애말기 지원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이다.

생애말기에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과 돌봄 부담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국가와 사회적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환자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



##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신입·경력간호사 모집

을지대학교병원(대전),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에 이어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이 개원합니다. 경기북부 최대 규모로 대학병원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할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 1. 응시자격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경력간호사

### 3. 전형일정

- 지원서 접수기간 : 2019. 07. 29.(월) ~ 08.17.(토)
- 지원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www.emc.ac.kr)
- 제출 : 메일주소 nr21@eulji.ac.kr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 2019. 08. 22.(목)
-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기간 : 2019. 09. 02.(월) ~ 09. 06.(금)

### 4. 지원서류

- 지원서 1부
-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5. 주소 및 문의처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39-38)  
담당자 : 이우정 (031-848-8631)

